

지역 소식통

부안군, 청소년 참여기구
위촉식 개최

부안군은 지난 9일 부안군청 소년문화의집에서 2022년 부안군 청소년 참여기구(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 조직한 기구로서, 청소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청소년으로 1년간 관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청소년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활동, 교류활동, 문화·예술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의 부안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전북 고창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16일까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대 50만원(2021년 카드매출액의 0.8%)을 지원받게 된다.

도매, 음식, 숙박, 서비스 등의 업종이 신청 가능하며, 1인 다수 업체 보유 시에는 2개 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보중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다.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 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국세청을 통해 군에서 일괄 확인해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선 7기 마무리 힘 써달라”

유진섭 시장, 4월 확대간부회의서 “흔들림 없이 정읍 발전 위해 성심껏 다해달라” 당부

유진섭 시장은 11일 4월 중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공간 조성 등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민선 7기 사업 마무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회의에는 최재용 부시장을 비롯한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

오전에 진행된 이날 간부회의는 특히 당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는 ▲내장산과 내장산문화관광용산호를 잇는 삼각 관광벨트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용산호



복합 힐링 레저공간 조성사업 ▲무성서원 유교 수련원 건립 ▲광역(정읍·고창·부안) 생활지원회수센터 건립 ▲구원초 테마공원 사계절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20개 사업의 추진 현황과 이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유 시장은 “민선 7기 4년 동안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준 결

과 ▲예산 1조원 시대 실현과 ▲용산호 일대와 내장산 문화관광 일원 중심으로 사계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이 속속 위용을 드러내고,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선정되는 등 지속 가능한 정읍 발전의 든든한 주춧돌을 마련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이어 “2018년 7기 시장 취임 당시 태풍 불라벤의 영향으로 취임식 없이 시작한 이후 오직 시민 행복과 정읍 발전을 위해 시장 운영에만 집중했다”면서 “민선 7기 정읍시장 성과는 공직자 모두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실”이라며 직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민이 행복한 정읍 만들어”

김민영 정읍시장 예비후보, 시민의 일상 책임질 생활공약 발표

김민영 민주당 정읍시장 예비후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가 11일 “시민이 행복한 정읍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의 일상을 책임질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생활 속에서 촘촘하게 시민을 챙길 수 있는 생활정책은 산업이나 도시정책, ESG경영전략과 같은 거대 담론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시민참여형 리빙랩(Lab) 전략으로 추진한 선거운동 방식을 정읍시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이 발붙인 생활정책을 바탕으로 행복한 우리 동네 동체에 1억원의 예산을 공모방식으로 지원해 신재생 공공에너지, 배란다정원 등을 확보하고 주차 걱정 없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조례제정을 통해 1가구 2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네

버스는 적자경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서비스 질이 지꾸 떨어지고 있어 ‘원전공영제’가 필요하다”며 “정읍시가 추진중인 농촌복지택시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서 “이미 전 국민의 2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정읍천과 내장산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추진한다”며 “반려동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산책로와 액티비티 시설을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돕겠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지금은 유명무실해져 버렸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체제 고령친화 도시였던 정읍의 명성을 회복하고 고령화 사회 정읍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베리어 프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은 물론 어린이와 장애인 이 동편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영 예비후보는 “교육청 이전 부지를 청소년지원센터로 탈바꿈시켜 △진로직업체험 △정읍인재학당 △청소년 외국어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펼쳐 교육도시 정읍의 면모를 갖춰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진수미감자 우체국쇼핑몰 특별판매전 ‘성황’

부안군, 동진강 주변 미네랄 풍부한 간척지 최상의 맛 적극 홍보

부안군은 감자 수확 시기를 맞아 실시한 우체국 쇼핑몰 ‘동진수미감자 특별판매전’에서 판매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우체국쇼핑몰 ‘동진수미감자 특별판매전’은 동진강 주변의 미네랄 풍부한 간척지에서 생산된 포슬포슬한 최상의 맛을 자랑하고 품질이 좋은 동진수미감자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관측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3월 31일부터 실시된 ‘동진수미감자 특별판매전’은 우체국쇼핑몰 내 ‘슈퍼윌리’, ‘부안사랑할인쿠폰’ 프로모션 이벤트를 제공하여 동

진수미감자를 대대적으로 홍보 판매한 결과 3,000박스(15,000kg), 4천5백만원의 매출 및 실시간 인기상품에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군은 우체국쇼핑몰과 함께 부안군 직영 로컬푸드 쇼핑몰 ‘덧밭할매(www.덧밭할매.kr)’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카페 ‘농라카페’에서도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중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연계한 오픈마켓 라이브방송을 통한 감자 판매 등 다양한 온라인 관측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작년 11월부터 부안지역 농수축산물 판매대행 업무협약 체결 이후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5억원의 상품을 판매하여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동진수미감자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최고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감자 이외의 다른 소득작목의 판로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고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무료 지원 ‘농산물 안전성 확보’

정읍시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운영한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이 의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곳이다.

분석실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후관동 1층 337㎡ 규모에 전처리실, 기기분석실 등의 시설과 잔류농약 463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농약 사용기

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성분을 검사해 결과에 따라 수확시기와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분석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출하 10~14일 전의 농산물 시료와 농업인 증명 서류(농업경영체 등록증)를 지참해 농산물 안전분석실에 방문 신청하



면 된다. 시는 분석실 이용 활성화와 농업인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로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 후보, 보육·교육환경 분야 9개 공약 발표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정읍발전 정책공약 세 번째로 ‘보육과 교육’ 환경 개선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공립 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립하고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부모에게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중 공립산후조리원은 지역 내 산후조리원이 소규모여서 부모들이 출산 후 산후조리를 위해 광주와 전주 등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한편 안전한 산후조리까지 책임을 져서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에 부응하는 약속이다.

또 정읍에는 87개소의 병·의원이 존재하지만 관내 5,900여 명의 유·초 등 어린이가 전용으로 찾을 수 있는

어린이 병동이 없다. 이 예비후보는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이웃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관내 종합병원에 저남권 어린이 전용 병동’을 설치하여 안정하게 아이를 치료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예비후보는 아이가 행복하고 육아가 즐거운 환경조성을 위해 장난감대여, 놀이방 시설 등이 갖춰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최대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어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 바우처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및 과일 간식을 늘리는 한편 맞춤형 인재강화금 지급을 도입하고 교육과 취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진로·직업 교실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늘리는 등 보육환경과 함께 부모가 육아와 교육에 행복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모두 9개의 공약을 약속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